

히에이산·비와코

산과 물 그리고 빛의 회랑





일본 불교의 근원이며, 어머니 산으로 칭송되는 히에이산

히에이산은 시가현과 교토부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5개의 봉우리를 가진 아름다운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줄기는 남북으로 약 16km, 최고봉은 해발 848m의 오오히에이입니다. 오오히에이를 중심으로 약 100km 범위에 사원의 경내가 펼쳐져 산 전체가 엔라쿠지 사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장엄하고 웅대한 영산입니다.

영산의 근본이 되는 엔라쿠지는 788년 천태종의 개조 사이초오(덴교오다이시)가 히에이산 산속에 이치조오시칸인(一乘止観院, 후의큰분추우도오(根本中堂))을 창건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엔닌, 엔친, 료오겐 등의 고승에 의해 토오토오(東塔), 사이토오(西塔), 요가와(横川)라는 3개 구역에 많은가람이 세워지면서 번창했습니다. 전성기에는 3000

명이 넘는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호넨, 요사이, 도젠, 신란, 니치렌 등 각 종파의 개조 고승을 다수 배출한 일본 불교의 근원이 되는 산입니다. 시가집 백인일수(百人一首)로 유명한 지엔(慈円)도 히에이산 대해 “세상에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은 많지만, 산이라고 하면 히에이산만을 말한다”라며, 히에이산을 일본 제일의 산으로 숭앙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히에이산의 또 다른 매력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입니다. 오랫동안 영산으로서 성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청정한 자연이 남아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제일의 호수 비와코를 내려다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옛 수도 교토의 거리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경승지입니다. 봄에는 야생 조류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에 마음이

끌리고, 신록이 눈부신 여름에는 평지보다 낮은 시원하고 상쾌한 기후 속에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 전체가 붉게 물드는 단풍의 가을, 순백의 눈에 휩싸이는 정적의 겨울 등, 사계절 철철이 변하는 경관이 마음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지켜온 12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세계에 높이 평가받아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정비된 경내에서 모든 불당의 배관은 물론, 주변의 자연산책과 사적탐방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World Cultural
Heritage Site
on December 17, 1994

일본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호수 비와코, 그곳은 생명을 기르고, 은혜로움이 가득한 어머니 호수.

비와코는 교토에서 동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하는 일본 최대의 면적과 저수량을 자랑하는 호수입니다. 총면적은 약 670km², 둘레 약 235km에 달하고, 세계에서 품히는 고대 호수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풍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약 1000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며, 그중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와코만의 고유종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세의 귀중한 도래지이기도 한 비와코는 1993년 랍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의 성역인 비와코는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면면히 생활을 영위해 온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호수입니다. 어류, 조류, 식물, 사람, 이처럼 비와코는 실로 많은 생물의 생명을 길러온 ‘어머니 호수’입니다.

비와코에서 바라보는 히에이산은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매료하며, 히에이산에서 바라보는 비와코는 거울 같은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히에이산에 가는 방법은 교토 쪽에서는 야세 히에이잔구치에서 에이잔 케이블과 로프웨이로 갈 수 있고, 시가 쪽에서는 사카모토 케이블 외에 드라이브웨이로도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모두 차창에서 바라보는 각각의 고유한 경치는 특별한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먼 옛날부터 히에이산에서 비와코까지, 또는 비와코에서 히에이산까지를 둘러보는 탐방여행은 웅대한 ‘산’의 자연과 풍광명미한 경치, 비와코의 은혜 넘치는 ‘물’, 불교의 성지에 불을 밝히는 심원한 ‘빛’, 그 모두를 역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행코스로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불교의 성지와 어머니 호수를 만나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낭만이 숨 쉬는 히에이산과 비와코를 탐방하는 순례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히에이잔연력사
토오토오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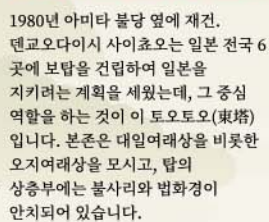
[illegible]

가장 중요한 하에이산의 신전. 엔라쿠지의 창시자 덴고오다이사 시초가 788년에 창건한 이치조오다이라(一止觀院)이 그 시초이며, 그 후 몇 번이나 재를 물감한지 세를 세 번씩 열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도쿠가와 에미쓰 공의 명으로 1642년에 중건된 것입니다. 건물은 국보로, 화랑은 중요문화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본존은 덴고오다이사 창건 시에 직접 조각했다고 전해지는 약사여래상으로, 그 앞에 밝힌 들본은 1200년 이상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어 '불멸의 불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wide-angle photograph of a large, traditional Japanese wooden building, likely a shrine or temple. The building features a multi-tiered, dark tiled roof with ornate eaves. The main structure is made of light-colored wood with red accents. It is surrounded by a paved courtyard with some greenery and a few people walking around. In the background, there are lush green mountains under a clear blue sky.

히에이산의 개창 1,150주년 대법요를 기념하여 1937년에 건립되었으며, 조상에게 불공을 드리는 도장입니다. 본존으로 아미타여래를 모시고, 일본 공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존의 효험은 선조 공양. 불당 앞에는 일본의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는 '스이킨쿠쓰'(물방울로 거문고 소리를 내게 하는 정이요, 아름다운 율림을 즐길 수 있습니



본당에 해당하는 사카도오(釈迦堂)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입니다. 토모토오(東塔)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으며, 제2차 천대좌주 캄코다사 엔초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수행 불당인 나니이도오와 덴교도이시 사히요 쇼닌의 위패를 모셔둔 조요도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연수도장인 고지린(居士林)도 있어서 수행체현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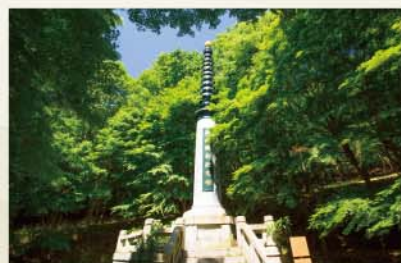
후케이도(法華堂)와 조유교오도(常行堂)라는 같은 형태를 한 2개의 불당이 하나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설의 승려 '벤케이'가 연결복도에 어깨를 들이밀어 땀(나니)다는 전설에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후케이도는 보현보살을, 왼쪽에 있는 조유교오도는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오(西塔)의 본당으로 덴고오다미시가 직접 만든
본존 석가(사카)여래상에서 유래한 이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히메이산을 토벌한 후,
1596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츠의 미미데라 절에서
이축한 금당으로 연라쿠지에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히에이산의 산기슭에 펼쳐진 아세는 '교토의 안방'이라고도 불리는
풍요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지역입니다. 봄·여름은 너무도 싱그러움
신록에 마음마저 깨끗해지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한가로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슬로우 지역입니다.



케이블 야세역 옆으로 나 있는 산책로입니다. '단풍
오솔길'이라 하며, 그 이름대로 단풍이 물드는 가을철에는
멋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푸른 단풍이 눈부신 싱그러움 광경이 펼쳐집니다.



야세 유역에서는 야세 강이라고도 합니다. 푸르른 자연을 노래하며 강변을 산책하는 것은 마음이 힐링되는 체험입니다. 교토의 바로 근처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성역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코는 방문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레이크 레저, 혹은 전통과 역사를 배우는 탐방여행, 특유의 생선요리 문화와 예술을 접하는 여행 등... 시가현 관광의 중심은 모두 비와코 호반에 모여 있습니다.



비와코 오쓰관을 중심으로 비와코 호반에 펼쳐진 녹음이 짙은 공원입니다. 원내에는 장미를 비롯한 사계절의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영국식 정원이 있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정원을 산책하는 가든워킹을 추천합니다.



An aerial photograph of Keelung Harbor, Taiwan. The harbor is filled with several large white ferries docked at a long pier. The city of Keelung is visible along the waterfront, with various buildings and a prominent tall, thin tower. The harbor is surrounded by steep, green mountains under a blue sky with scattered clouds.

비와코 크루즈의 거점으로 유럽선 미시간 등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구입니다. 비와코에 떠 있는 3개의 섬으로 신의 섬이라 불리는 지쿠부시마, 섬 전체가 사원의 경내인 다케시마, 어업이 활발한 오키시마까지 유럽선과 고속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1934년 시가현 최초의 국제관광호텔로 건축된 구 비와코 호텔의 본관을 활용한 문화시설입니다. '호수 고장의 명빈관'이라고도 불리며, 일본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을 매료시킨 우아한 건물 내에는 레스토랑, 카페, 갤러리,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영국식 정원도 인기가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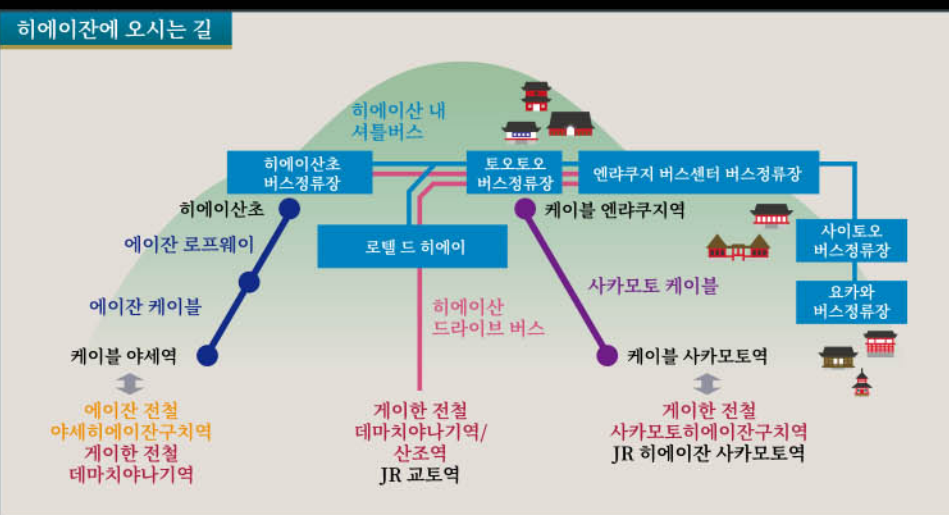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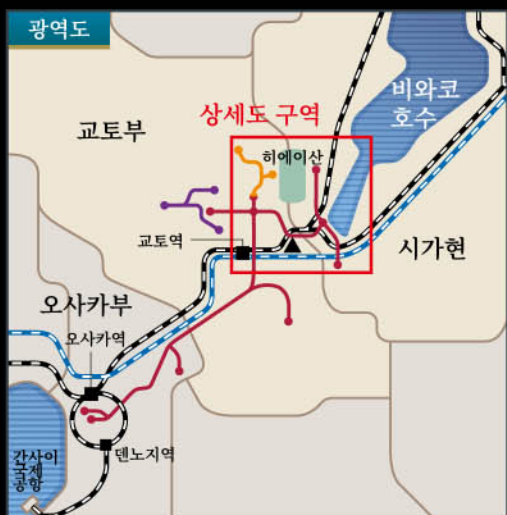


비와코의 웅대한 경치와 식사를
즐기는 80분 코스
미시간 80

비와코의 아름다운 저녁노을,
야경과 함께 식사를 만끽
미시간 나이트



히에이잔 산·비와코 호수 상제도



이곳에 게재된 내용은 2018년 1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히에이산·비와코<산과 물 그리고 빛의 회랑>
<https://www.hieizan.gr.jp/>



히에이잔 산엔라쿠지 절
http://www.hieizan.or.jp/



比叻山振興會議